

# 광주 효자종목 배드민턴 전국체전 출발 좋다

고등부 복식·혼합복식 등 2개  
조선대 여자복식도 동메달 추가  
전대사대부고·조선대 단체전 4강

(광주체고)와 조송현(전대사대부고) 조도 경기 최평강-조유나에 패해 3위를 기록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조선대 김다솜(4년)-안혜원(2년)이 준결승에서 부산 조서영-지영빈에게 발목이 잡혀 결승 티켓을 놓쳤다.

광주의 전국체전 '효자종목' 배드민턴이 선전하고 있다.

특히 배드민턴은 올해도 광주의 종합순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배드민턴 대표들은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3위(1710점으로)를 차지, 광주의 종합 10위에 기여했다.

전대사대부고 배드민턴 팀은 14일 제102회 전국체전 사전 경기로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고등부 단체전에서 전북선발을 3-0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여자대학부 조선대도 이날 단체전에서 경북선발을 3-0으로 따돌리고 준결승전에 합류했다. 광주 팀들은 15일 준결승전을 치른다.

한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8일부터 구미 등에서 7일간, 장애인체전은 10월 20일부터 6일간 열린다. 전국체전에는 선수와 임원 2만6000명, 장애인체전에는 9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전 종목이 무관종으로 진행된다. 광주는 모두 1364명(본부임원 90명, 감독·코치 254명, 선수 1020명)이 참가한다.

광주 배드민턴팀은 지난 12일 남자고등부 개인복식 준결승에 진출한 노진성-안윤성(전대사대부고 3년)조가 충남 윤보-진용조에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등부 혼합복식 준결승에 오른 김예리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대사대부고 노진성(왼쪽)과 안윤성.



조선대학교 안혜원(왼쪽)과 김다솜.

## 女핸드볼 아시아선수권 개막 한국 5회 연속 우승 도전 광주도시공사 김지현도 출전

한국 여자핸드볼이 아시아선수권대회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우리나라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은 15일부터 25일까지 요르단 아만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12일 출국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8강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8월 30일부터 인천선수촌에 재소집돼 약 2주 정도 손발을 맞췄다.

도쿄올림픽에 나갔던 선수 중에서는 류은희(형가리 교리), 이미경(일본 오므론), 김진이(부산 시철공단), 조하람, 정유라(이상 대구시청), 정진희, 정지인(이상 한국체대) 등 7명이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도 출전한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도 선수단에 합류했다.

아시아 최강인 한국 여자 핸드볼은 2012년 인도네시아 대회부터 2018년 일본 대회까지 최근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앞서 열린 17차례 대회 가운데 14번이나 우승했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나라가 출전,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홍콩,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편성됐고 B조는 일본,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시리아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15일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 상위 6개 나라가 올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한다.

한국의 5연패를 견제할 만한 팀으로는 일본, 카자흐스탄 정도가 꼽힌다. /연합뉴스

## 펜싱 오상욱 오픈선수권 우승 금 합작 구본길·김정환 연파

펜싱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2위 오상욱(성남시청)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던 국가대표 '형남'들을 연이어 꺾고 국내대회 정상에 올랐다.

오상욱은 14일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2021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을 15-1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도쿄올림픽 당시 사브르 개인전 세계랭킹 1위를 달려 2관왕 기대를 모았으나 개인전에선 8강에서 탈락했던 오상욱은 단체전에선 김정환,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와 함께 금메달을 일군 바 있다.

이후 첫 국내대회였던 지난날 대통령배 전국 남녀 선수권대회 때 오상욱은 결승에서 김정환을 만나 8-15로 져 준우승했는데, 이번엔 결승 리턴 매치에서 실욕에 성공했다.

오상욱은 종목별 오픈 대회 개인전 2년 연속 우승도 달성했다.

이날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선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멤버 4명이 나란히 4강에 진입해 국내 정상의 기량을 재확인했다.

준결승에서 오상욱이 구본길을, 김정환이 김준호를 각각 15-12로 물리치고 결승에서 맞붙어 오상욱이 승리했다.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최인정(계룡시청)도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그는 결승에서 신현아(부산광역시청)를 15-11로 물리쳤다.

이 밖에 남자 에페 이승현(화성시청), 남자 플뢰레 김동수(광주시청), 여자 사브르 이라진(안산시청), 여자 플뢰레 신임승(성남시청)이 각각 개인전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NFL 개막...열광하는 미국

미국프로풋볼리그(NFL) 2021-2022 시즌이 시작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개막 경기에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쿼터백 데렉 카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수비를 뚫고 볼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컬링 '팀킴' 시즌 첫 국제대회 무패 우승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 (강릉시청)이 2021-2022 시즌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7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며 "경기에 좀더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팀킴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열린 앨버타 컬링 시리즈 '사빌 스타아웃' 결승에서 팀 워커(캐나다·스킵 로라 워커)를 6-1로 완파했다.

팀킴은 '정신적 지주'인 피터 켈린트 감독이 정식 여자컬링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고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스킵 김은정, 서드 김경애, 세컨드 김초희, 리드 김선영, 후보 김영미로 구성된 팀킴은 전지 훈련을 겸해 이 대회에 출전했다.

강릉시청 감독인 임명섭 대표팀 코치는 "오랜만에 나선 국제대회에서 우승해서 기쁘다"며 "팀킴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좀더 자신감을 갖고 다른 대회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켈리피케이션 대회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대회 예선을 4전 전승으로 통과한 팀킴은 8강에서 팀 에이나스(캐나다·스킵 캐리 에이나스)를 8-7로, 4강에서 팀 사이데거(캐나다·스킵 케이시 사이데거)를 5-4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팀킴은 오는 12월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자격대회(켈리피케이션)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전지 훈련으로 담금질을 하고 있다. 팀킴은 18~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셔우드파크에서 열리는 '셔우드파크 여자컬링 클래식'에 출전해 2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결승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1로 앞선 3엔드 1점 획득하고 4엔드 2점을 스틸한 팀킴은 6엔드 1점을 추가하며 상대의 항복을 받아냈다.

김은정은 "한국에서 늦은 시간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과 에드먼턴 교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1-2022시즌 첫 국제대회인 앨버타 컬링 시리즈 '사빌 스타아웃'에 출전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14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열린 결승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보이스
2관	보이스
3관	상차와 텐 링즈의 전설
4관	기적
5관	기적, 보이스, 말리그먼트, 인질
6관	기적
9관	말리그먼트, 인질, 좋은 사람, 죽을 때까지 국장판 평구는 못말려, 격돌! 나라사랑과 알주 네 명의 용사들
7관	씨네캐슬 기적, 모기디슈, 인질, 슈퍼문
8관	씨네캐슬 모기디슈, 스피릿, 싱크홀 극장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2021.09.24(금) 11:00A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1.10.01.(금) ~ 10.05.(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8237